

칼럼

선거 특별 기고



김현근
사학 2014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포기해야만 한다.’ 현재 총여를 이끌어 나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인 것 같다.

우리에게 총여학생회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

필자는 총여학생회(총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일반적인 시선들과는 조금 다르다. 필자는 총여가 두고 있는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성 이분법적인 구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제도를 손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뿐이다. 총여의 현행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문제는 ‘남성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개방해야 한다’ 든가 ‘총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총여 폐지를 주장하는 남성연대가 ‘남성들의 등록금을 총여학생회에 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지적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정부는 비장애인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부자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빈곤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던가? 이처럼 여성이라는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고 여기에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쓰이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여성을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성차별이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고위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4.5%이고(2014 국정감사 자료) 국회의원 수는 15.6%(19대 총선 기준)이다. 그리고 여성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10%나 높으며 여성의 평균 소득은 남성의 64.7% 밖에 되지 않는다.(심지어 이 비율은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도 우리 사회의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일상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여성을 억압하는 편견, 말 등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회 운동을 한다는 단체나 학교 학생회에서조차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언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성에 차별적인 사회 문



총여 존재와 관련된 논란은 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여의 ‘족속’과 ‘폐지’의 각 입장에서 유의미한 논지가 확보되지는 않은 채 총여 존재 논란은 논란 그 자체로 확대 재생산을 반복해왔다. 사진은 지난 2007년 서울캠퍼스의 총여 재신임 투표 관련 현수막

화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도 여성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총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을 타파해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바로 그 곳에 총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총여는 여성 억압적인 사회, 학교, 더 나아가서는 총학생회,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데, 이런 조직이 총학생회 산하에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총여를 여학생들의 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총여를 폐지하자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처럼 총여가 공격받고 있는 것은 페미니즘, 여성운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만큼 현대에 와서 오명을 쓰고 잘못된 비판을 받는 사상은 드물다고 생각한다. 요즘 흔히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꼴페미’, ‘페미니차’와 같은 말들 또한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비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 간의 성대결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반대다. 페미니즘

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 여성을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나누는 성 이분법을 깨뜨리는 운동이며, 사상이며,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고루한 악습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왔고, 자본에 대한 인간의 종속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상 중에 하나로서 여전히,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한 사상이다. 그렇기에 총여가 페미니즘을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총여가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총여 선본의 공약은 꽤 우려스럽다. 총여를 여학생들의 자치회비만을 사용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총여를 폐지하자는 주장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총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현재하고 있는 활동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총여는 여성들의 자치회비 만으로도 운영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그렇지 않은 자치기구가 많다.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총여, 총유학생회를 지원하

고 모든 학생이 읽지는 않지만 학내의 정보들을 성역 없이 전달하여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학주보를 지원하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학생 사회의 파탄일 것이다.

총여를 여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물론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총여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여가 여학생들의 자치기구에 머무르는 순간 위에서 말한 총여의 존재 이유에서는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다른 자치기구와의 차별점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이것은 결국 총여의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 밖에 되지 않는다. 등산을 할 때 이런 말이 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을 포기해야만 한다.’ 현재 총여를 이끌어 나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인 것 같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성차별을 교내에서부터 타파하기 위한 총여가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총여학생회는 단순히 여학생들의 자치기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해나갈, 투쟁하는 총여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교양리포트②
[글쓰기 2]

‘비판’과 ‘논리’의 양날개로 눈을 뜨다



오태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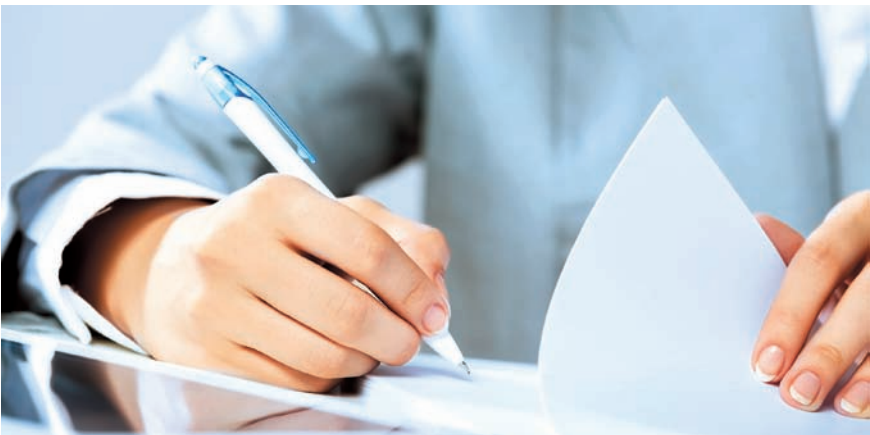
‘글쓰기 2’는 ‘글쓰기 1’의 교육목표와 내용, 강의 방식을 심화, 확대한다. 글쓰기 2는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학술적 글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1 목

표로 하는 수업이다.

2014년 11월 현재 ‘눈 먼 자들의 국가’(박민규)인 대한민국에서도 글쓰기는 유효하다. 현재진행형인 참사 앞에서 무기력과 분노 사이를 배회하는 ‘냉소와 비판과 망각’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기획하고 모색하는 후마니타스인에게도 더더욱 필요한 도구

가 된다. 글쓰기는 삶 쓰기다. 글을 쓰는 가운데 자신이 지나온 삶의 궤적이 자연스레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글쓰기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삶과 세계에 대해 신중하게 말을 거는 사유의 기록에 해당한다. ‘글쓰기 2’는 ‘글쓰기 1(나를 위한 글쓰기)’에 이어 ‘세계와 나’의 관계를 질문하며 ‘학문적 기초’를 견실하게 만드는 교양의 토대 역할을 수행한다. 그 질문은 ‘비판’과 ‘논리’라는 두 날개를 통과하며 구체화된다.

‘글쓰기 2(대학 글쓰기 : 세계와 나)’는 1학년 때 학습한 ‘글쓰기 1’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만, ‘글쓰기 1’에서 제기하는 자기성찰성과 관계론적 타자성이라는 테제를 안고 넘어선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인식론적 사유 능력과 시민교육(제2의 탄생)에서의 실천적 문제제기를 함께 녹여낸다. 그리하여 ‘글쓰기 2’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인간과 사회와 자연이 어우러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생각의 지도’를 제시한다. 그렇게 ‘글쓰기 2’는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중추로서 교양과 전공 사이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한다.

‘성숙한 소통’과 ‘현명한 공존’을 위해 ‘글쓰기 2’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을 강조한다. ‘비판적 사고’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왜’라는 질문만이 기성 세대의 담론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에 대해 균열을 가하며, ‘내 목소리’를 담금질하는 물질 토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쓰기 2’에서는 ‘관찰하라, 의심하라, 예민하라, 망명자의 눈을 가지라, 약자의 편을 들라, 새로운 개념을 만들라’ 등의 6가지 항목을 강조한다. 온몸의 발상과 세심한 관찰로 이 세계를 회의(懷疑)하면서 자신

만의 족수를 민감하게 버리며, 제3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계를 재정의하려 할 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글쓰기 1’에서 글쓰기의 시발점을 ‘나’로 삼아 지나온 생의 궤적을 들여다보면서 ‘5단락 글쓰기’를 통해 ‘글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했다면, 이제 ‘글쓰기 2’는 인간과 욕망, 사회와 체제, 지구와 미래 등의 세계를 탐문한다. 그것들의 표정은 정체성과 사랑, 공동체와 자본주의, 생태계와 문명으로 연결되면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개별적 인간의 정체성’으로 시작하여 ‘미래 문명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에 이르기까지 6가지의 소주제들로 ‘5단락 형식’의 ‘논리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개

별 전공과 관심 영역에서 추려진 자료들을 읽고 소화하면서 새로운 주제와 개요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논리적 체계화를 반복 훈련하는 것이다.

‘글쓰기 1’에서 반복 수련한 ‘5단락 글쓰기’의 형식은 ‘글쓰기 2’에서 1학기 동안 A4 7장 정도(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소논문 1편’을 작성하는 훈련으로 확장된다. 이때 ‘소논문’은 단번에 작성되지 않는다. 주제와 개요가 구성된 뒤에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고쳐 쓰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더 나은 논문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문제제기가 예리해지고 왜소했던 처음의 논리가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소논문 작성이 마무리되면 학기가 종료되지만, 학술적 글쓰기의 여정은 그때에야 비로소 새로이 시작된다. 새로운 주제를 찾아 비판적 사고로 논리적 표현을 수행하는 임무는 여전히 전공과 교양 수업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대학 글쓰기’의 숙명이다. ‘비판’과 ‘논리’의 양날개로 ‘글쓰기 2’를 체현한 후마니타스인은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세계’를 모색하기 위해 모순덩어리로 착종된 이 세계를 읽고 생각하고 쓰는 ‘호모 코기타무스(homo cogitamus, 共思人)’다. 그렇게 ‘눈을 뜬 자들’이 ‘눈 먼 자들의 국가’를 책임질 후마니타스인 것이다.